

목회의 프락



이동균 목사
해성교회 담임

— 중학교 입학 앞둔 신입생들에게 진우야, 초등학교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1학년 입학을 앞두고 가방을 사러 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느새 6년을 잘 걸어와 졸업이라니 참 빠르다. 입학하던 해에 코로나가 심해서 입학식도 하지 못했고, 긴장한 내가 서재에 앉아 조용히 공부하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하다. 그래도 아프지 않고, 웃으며 초등학교를 마쳐 주어서 참 고맙고 대견하다. 작년 여름부터는 중학교 입학에 대해 자기소개서를 쓰느라 애를 많이 썼지. 초등학교생으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학교생활을 정리하고, 바라는 모습을 글로 쓰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야. 울기도

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배울 것이 많아. 선생님도 마찬가지다. 훌륭한 선생님은 이미 곁에 계시다. 다만 그 선생님을 알아보고 가까이 가는 일은 네 몫이다.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있을 때, 선생님은 길을 비춰 주고 응원해 주신다. 기숙사 생활은 집보다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배려와 질서가 자란다. 친구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우정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는다. 어딘가에 있든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연습이 될 것이다. 자율과 자기주도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 조금씩 연습하며 만들어 가는 것이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서, 선의 경쟁과 우정을 함께 품고 오래 달리는 사람이 결국 자기 자리에 도착한다. IB와 기숙사 생활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는 연습을 하기에 좋은 시간이다. 혼자 견뎌낸 시간은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불고기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 큰 폭포를 넘으면 용이 된다는 등용문 이야기가 있다. 중학교 생활은 그 강 앞에 서는 일과 같다. 물살이 세게 느껴질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기르는 시간으로 삼으면 된다. ‘갈매기 조나단’ 이야기도 읽었지. 같은 날개를 가졌지만, 조나단은 더 높이, 더 멀리 날고 싶어 했지. 실패하고 상처받고 외톨이가 되기도 했지

사랑하는 진우에게

했고, 그만두고 싶었던 날도 있었지. 그럼에도 끝까지 해낸 덕분에 자기주도와 자율을 소중히 여기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참 좋았다. 중학교 3년은 앞으로의 삶을 떠받치는 디딤돌 같은 시간이다. 이때 만들어지는 습관과 태도는 오래 남는다. 기숙사 생활에서는 성직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지. 함께 사는 법, 서로를 배려하는 법, 기다리고 참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거야. 그러다 보면 평생 기억에 남을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인생을 이끌어 줄 형이나 누나를 만나기도 한다.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다. 이 시기에는 책을 많이 읽어야 하지. 책은 조용히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삶을 바라보는 눈을 넓혀 준다. 당장 성적을 올려주지는 않지만, 생각하는 힘과 말하는 힘을 키워 준다. 혼자 있는 시간의 외로움을 견디게 해 주고, 낯선 세상을 안전하게 건네게 도와줄거야. 위인전 속 사람들도 처음부터 특별했던 것은 아니지만, 포

만, 결국 자기 속도로 높이 높이 날아 자유를 만끽했었지. 그리고 다른 갈매기들에게 말해 주었어. “너희도 날 수 있어.” 자기 속도와 자기 방향으로 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단다. 베이스 기타를 꾸준히 배우는 너의 모습이 참 좋아. 베이스는 눈에 띄지 않지만 음악 전체를 받쳐 주는 뿌리와 같은 악기다. 앞서기보다 함께 맞추는 법을 배우고, 리듬을 지키며 중심을 잡게 해주지. 그 조용한 힘은 앞으로의 삶에서도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인생은 빨리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경주가 아니야. 자기 속도를 지켜 끝까지 가는 사람이 결국 도착지에 가지.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 지금 이 길 위에서 있는 네 모습이 참 자랑스럽다. 바람이 불어도, 길이 잠시 어두워져도 너는 이미 잘 걷고 있어. 아직 멀어 보이는 길도, 서두르지 않고 걷는 한 결국 너만의 아름다운 풍경에 닿게 될 것이다. 중학교 진학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해.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기고③



김민식 목사
광주동광교회원로목사

▶지나호에 이어서

내가 처절하게 절망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지금까지 주님의 길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직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도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처럼 나의 약함과 못남을 자랑하려고 한다. 나의 직가. 광주의 구역 사거리에서 자동차 터미널이 있었을 때이다. 1972년 병이 들어서 서울에서 내려와 고향 장성에서 광주 직행버스를 타고 국도를 달리는데 얼마나 차가 뚝뚝이 구역 터미널에 도착 하자마자 피를 얼마나 쏟았는지 모른다.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었고 절망과 허무의 자리가 바로 구역 사거리였다. 그 절망의 긴 터널을 헤쳐 나온 이야기를 짧은 지면에 다 쓸 수 없다. 바울 사도가 눈이 먼 곳이 직가였던 것처럼 구역 사거리는 김민식이란 인간의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허무의 자리였던 것이다. 그때는 나에게 다가오는 근심과 염려와 절망과 불

무하게 한다는 것을 안다. 누구나 무대를 내려올 때가 있다. 평생을 섬겼던 교회를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무대를 내려와야 한다. 친구도 언젠가는 떠나가게 되고 언젠가는 교우들과 이별을 해야 한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살아온 지금, 외로움과 고독이 때론 밀려오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고 고독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내가 더 새로워지고 내 사람이 더 깊어지고 내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을 느낀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행복한 기다림. 봄이 기다려지고 여름이 기다려지고 가을이 기다려지는 것이다. 또한 은퇴 후에 가장 목사를 힘들게 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다. 누가 연금 재단을 농단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연금에 손을 대는 목사들에게 분노가 치밀어 온다. 그래서 은퇴 후에 설계를 잘해야 한다. 한 마을에 사는 목사님은 은퇴 시 교회 재정잔고가 75억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에 대한 예우를 해주려고 많은 애를 썼지만 일절 거절하고 이곳 진마루 마을에서 함께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운다. 내 젊은 날 가난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해결하는 법을 모르고 살아다가 인생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 자살을 생각하고 죽음이 코앞에 와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과 관계개선하여 지금까지 살아 있다. 그러면 목사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족하는 비결이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고 초라하게 은퇴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고 큰 교회를

“괴로웠지만 행복한 목사”

행을 처리하는 법을 모르고 외로움과의 싸움, 허무와의 싸움, 고독과의 싸움을 하면서 죽음이 내 코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나의 싸움은 얼마나 처절했는지 모른다. 이겨내지 못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그때...발걸음을 교회로 옮겼는데 나에게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내 운명을 살들켰던 것이다.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직가, 기적의 직가, 영원한 생명의 직가가 나타났던 것처럼. 구역 사거리 그 직가에서 하나님은 내 삶을 섭리하고 계셨던 것이다. 직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만남을 가진 이후의 삶은 나에게 너무나 다른 여정이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내가 은퇴 이전에도 외로움과 고독감이 있었고 은퇴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과 친구들, 동료들이 광주를 떠나지 말고 함께 지내자고 권유했다. 그리고 많은 교우들도 가까운 곳에서 같이 살자고 말했지만, 교회를 멀리 떠나온 것이 너무나 나에게 유익이 많다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한다. 그래서 그린도전서 9장 27절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싶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라.” 그 예수를 은퇴 후에 내가 어떻게 간직해야 할 것인가? 예수와 관계개선을 하기 전에 그 외로움과 고독이 내 삶을 어디로 이끌었는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병들어 살아갈 때 나의 외로움과 고독 속에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는지 모른다. 그때 권해경의 “산장의 여인”을 참 많이도 불렀던 시절이었다. 밤이 두려웠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고독을 경험했었다. 세상 사람들이 컨테스롭고 외로워서, 고독해서 술을 마시고 사람을 만난다지만 그것은 사람을 더 외롭고 더 고독하고 더 허

이루어 목회 성공을 했다고 하는 분들이 마지막 물러날 때에 초라하게 은퇴를 하는가? 많은 경우 자족하는 법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내가 중립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4:11-12)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남은 여생이 불행의 연속이다. 자족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은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다. 역만급이 있어도 자족하기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내 자랑 좀 하겠다. 내 소유로 땅 한 평 없다. 아내의 소유다. 여기 진마루 광장이 몇백 평 정도 도시 1평 값도 나오지 않았지만. 도시에서는 별 볼일 없이 그렇게 바쁘게 지루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차 마시고 정치하고 살겠지만, 아무도 없기에 여기 진마루 광에서는 밤마다 별 볼일 있게 산다. 은퇴 시 도시에다 근거를 삼으면 집값 때문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조달리고 살겠는가? 교회에서 돈이 없어서 가장 헌금을 적게 하는 사람들이 목사 아닌가? 나는 그랬다. 그래서 마지막 은퇴 시에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지켜준 교회에 너무나 감사해서 내 생애 가장 큰돈을 헌금할 수 있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람이 귀찮고 전화가 귀찮아서 받지를 않는가? 그러나 여기 진마루에서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 더욱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의지하게 된다. 배토벤의 아다지오가 흘러 나온다.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다가 환희의 송가를 부르라고 한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션2 구독 및 광고 문의

T. 062)367-9109 F. 062)367-9108

대한예수교장로회

2026학년도 총회신학 신·편입생 모집

본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인준 정통 보수주의 신학연구원입니다. 청교도적 개혁주의 보수신학의 요람으로서 신학과정을 이수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강의를 중심으로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성실한 길잡이가 되도록 본 총회신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장 신혜란 목사

대표전화

062)511-2491
010-3161-2491
http://www.gchongsin.com

원서교부 및 접수처

원서교부 : 광주, 전주, 순천 총회신학
원서접수 : 수시 접수
*전형료는 없음

총회신학의 장점

최고의 교수진이 있습니다.
남·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교회개혁 및 설립인허,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문의

광주 062)511-2491
전주 063)272-2491
순천 061)751-2491
수양관(곡성) 061)362-2491

통신과정

1. 시간, 지역,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석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사망자는 통신으로 전과정을 이수하고 목사고서를 거쳐 안수 받을 수 있습니다.
2. 능력별로 이수하므로 조기에 졸업할 수 있습니다.

365일 언제나 입학가능! 실패, 학비, 나이 학력
모든 걱정 내려놓으시고 오세요!

과정	모집학과	학제	모집인원	자격
신학부	신학과 (주말반, 야간)	8학기	30명	고졸, 새래받은 자 전문대졸자는 3학년 편입가능
	목회학과 (주말반, 야간)	8학기	20명	새래받은 자, 평신도, 사망자
신학연구원	신학과 (주말반, 야간)	6학기	00명	신학부 졸업 및 졸업 예정자 동등학력 소지자
	목회학과 (주말반, 야간)	6학기	00명	
학술원	성경심화과정	2년	00명	목회자, 신대원 졸업자
평신도 성경연구원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세계화할, 4학기(1년) 평신도 지도자 과정 후 신학 과정에 편입할 수 있음			
특전	신대원 졸업자는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에 편입 가능 여목제도 있음			